

2026년 누리과정 포털

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우리 가족 놀이 실천 사례 공모전

제목: 오미생태공원과 금천녹색광장에서 찾은 소통과 성장

1. 특별한 우리 가족에게 필요했던 숨구멍, 그리고 새로운 발견

우리 가족의 주말 아침은 언제나 남들보다 조금 더 분주하고, 또 조금 더 조심스럽게 시작됩니다.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큰아들 ○○이는 조금 특별한 아이여서 세상을 조금 다른 주파수로 받아들입니다. 시각과 청각에 예민한 ○○이에게 화려하고 복잡한 구조물이 있는 일반적인 인공 놀이터나 북적이는 키즈카페는 때로는 즐거움보다 긴장감을 안겨주는 장소였습니다. 그 아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에너지가 넘치고 호기심 많은 동생 ○○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찾는 것은 우리 부부에게 언제나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.

○○는 미끄럼틀을 타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뛰어놀고 싶어 했지만, 오빠 ○○이는 조용한 곳에서 자신만의 안정감을 찾길 원했습니다. 두 아이가 함께 손을 잡고 웃을 수 있는 곳, 그리고 부모인 저희가 아이들의 미소를 지켜보며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절실했습니다. 그러던 중 우리 가족은 집 근처에 있는 지역사회 자원인 '오미생태공원'과 '금천녹색광장'으로 발걸음을 돌렸고, 그곳에서 우리 가족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초록빛 기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.

2. 오미생태공원 - 감각을 일깨우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자연 치유의 숲

오미생태공원은 우리 가족에게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훌륭한 자연 놀이터이자 치유의 공간이 되어주었습니다. 처음 이곳에 방문했을 때, ○○이는 평소와 달리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.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, 발밑에서 기어가는 작은 곤충들의 움직임, 계절마다 색을 갈아입는 꽃들의 냄새는 ○○이의 예민한 감각을 자극하기보다는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.

인공적인 장난감이 없는 생태공원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놀이를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. ○○이는 바닥에 떨어진 솔방울의 규칙적인 모양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, 거칠지만 따뜻한 나무껍질을 만지며 자연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. 놀이기구가 없어 심심해할 줄 알았던 ○○ 역시 흙을 파서 작은 집을 만들고, "오빠, 이것 봐! 무당벌레야!"라며 ○○이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소통의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.

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, 평소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시간이 걸리던 ○○이가 ○○가 건네준 예쁜 모양의 낙엽을 받아 들고 환하게 웃으며 ○○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을 때입니다. 비싼 장난감으로도, 훌륭한 치료실에서도 쉽게 볼 수 없었던 그 따뜻한 남매의 교감은 오미생태공원이라는 거대한 자연이 품어준 덕분에 가능했습니다. 부모로서 저희는 그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뒹굴고 탐색하도록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족 간의 사랑이 깊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

3. 금천녹색광장 - 경계를 허물고 세상과 연결되는 열린 도화지

오미생태공원이 차분한 탐색과 치유의 공간이었다면, 금천녹색광장은 우리 가족이 세상과 더 가까워지게 만들어준 역동적인 소통의 장이었습니다. 탁 트인 넓은 광장은 닫힌 공간을 답답해

하는 ○○이에게 무한한 자유를 선물했습니다. 정해진 동선이나 좁은 통로가 없는 광장에서 ○○이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달리고 멈출 수 있었고, 이는 아이의 스트레스를 눈에 띄게 줄여주었습니다.

금천녹색광장에서는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었습니다. 집에서 가져온 비눗방울 하나면 충분했습니다. 아빠가 커다란 비눗방울을 만들어 허공에 날리면, ○○이와 ○○는 그것을 쫓아 잔디밭을 힘껏 달렸습니다. ○○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지면, 주변에서 놀고 있던 동네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.

놀라운 변화는 이때 일어났습니다. 친화력이 뛰어난 유치원생 ○○가 동네 친구들에게 다가가 "우리 오빠랑 같이 비눗방울 잡기 놀이하자!"라며 주도적으로 놀이의 장을 열었고, ○○이 역시 거부감 없이 아이들 무리에 섞여 함께 뛰어놀기 시작한 것입니다. ○○이의 특별함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광장의 너른 잔디 위에서, 그리고 아이들의 순수한 놀이 속에서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. 금천녹색광장은 우리 가족을 사회의 테두리 안으로 부드럽게 이끌어준 완벽한 통합 놀이터였습니다.

4. 긍정적 변화와 미래를 향한 기대 - 지역사회 자원이 선물한 가족의 행복

오미생태공원과 금천녹색광장을 우리 가족의 주말 아지트로 삼은 이후, 우리 집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. 스마트폰과 TV 화면에 의존하던 시간은 줄어들었고, 거실에서는 공원에서 주워 온 도토리나 나뭇잎을 스케치북에 붙이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.

무엇보다 큰 변화는 ○○이의 성장입니다. 자연의 규칙적이고 편안한 자극 속에서 아이의 정서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, 가족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빈도가 크게 늘었습니다. 또한, 오빠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자연 속에서 배워가는 ○○를 보며, 이 두 지역사회 자원이 우리 부부에게는 세상 그 어떤 육아 지침서보다 훌륭한 스승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아이들의 긍정적인 변화는 고스란히 우리 부부의 행복으로 이어졌고, 육아의 고단함은 숲길을 걸으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 씻겨 내려갔습니다.

5. 맺음말 - 우리 동네, 가장 훌륭한 놀이 공동체

때로는 아이를 키우며, 특히 발달이 특별한 아이를 키우며 막막하고 고립된 기분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 오미생태공원과 금천녹색광장이라는 우리 동네의 훌륭한 자원은 우리 가족에게 기꺼이 넓은 품을 내어주었습니다. 우리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고, 세상과 소통하며, 남매간의 우애를 다질 수 있었던 것은 거창한 테마파크가 아닌 매일 마주하는 우리 동네의 숲과 광장이었습니다.

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이 초록빛 공간에서 더 많은 추억을 쌓아갈 것입니다. ○○이와 ○○가 자연 속에서 훌쩍 자라나는 만큼, 우리 가족의 사랑도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 믿습니다.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놀이 자원들이 더 많은 영유아 가족들에게 발견되어, 저희가 겪은 소통과 치유의 기적이 곳곳에서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. 우리 가족의 행복한 놀이 지도는 오늘도 오미생태공원과 금천녹색광장을 향해 그려지고 있습니다.

